

건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마치고

우 리 건설현장에는 너무나 많은 문제점과 대책이 요구되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생각된다. 오랜시간 동안 부실과 부조리 그리고 재해로 이어진 건설현장의 결과는 대형사고로 여지없이 드러났다. 이제 더 이상의 부실과 부조리, 재해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완벽한 조직을 체계화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관리자, 근로자, 경영자의 의식을 바꾸어 나가야 할 것이다. 안전은 곧 경제와 연결되며,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과 개인을 살릴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안전에 관한 자료와 기술의 습득이다. 안전에도 전문성이 요구되며 강력한 권한행사를 할 수 있는 능력과 지위를 얻어야 할 것이다.

넷째, 안전에 관한 법규와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고, 구태의연한 사고방식과 형식적인 관리체제에서 벗어나야 한다.

끝으로 복지국가일수록 재해율이 낮다. 경영자의 생각이 바뀌면 관리자의 생각도 바뀌고, 관리자의 생각이 바뀌면 근로자의 의식도 바뀔 것이다.

불안전한 건설현장은 곧 불안정한 사회일 수밖에 없으므로 우리 모두 안전한 현장과 안전한 국가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안전에 대한 개개인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및 직원의 안전을 위해 곧바로 실천 가능한 조직적 개편과 아울러 안전관리비의 적절한 사용이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현장내의 정리정돈을 통한 작업환경의 개편과 안전의식이 우리 근로자에게 습관처럼 지속적인 행동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이른 정부의 안전에 대한 안정된 정책 등 여러 교육을 통해 일반화된 것들로서 전국 각 현장에 종사하는 우리 근로자에게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 육 생 광 장

안전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에는 불가능이 없다는 신념으로 나아간다면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가 모든 면에서 완벽할 수는 없지만 하나하나 개선을 통해 사업장의 안전보건 발전을 향한 기초가 될 것으로 믿는다. 더불어 경영진과 안전 관계자, 근로자 등 서로가 안전조건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다면, 우리 현장의 모범 사업장으로서의 변신이 멀지 않은 장래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확신한다.

전승수/뉴익건설(주) 건축주임

요즘 안전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따른 많은 시행 착오로 인해 어떤 건설현장이라도 나름대로 의고민을 갖고 있을 것이다. 그런 문제들 속에서 내게 피부로 와닿은 ○○ 현장의 실정은 정말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개월 동안 이 현장의 사실상 제해는 경상 2건이 있었는데, 이는 근로자의 안일한 의식에서 비롯된 경미한 사고였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현장 전체에 대한 안전관리가 소홀했던 전체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의식도가 문제였던 것 같다.

지금은 안전진단 실시로 현장내에 존재하고 있던 여러 위험의 요소들이 없어지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현장내에서 갖추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된다.

오정은/창안통신 공무과장

아직까지 안전이란 그저 먼나라의 이야기처럼 인식되어오던 것이 사실이었다. 금번 교육을 받기 이전에는 회사의 이익에 별로 도움이 안되려니 생각한 것도 사실이고 작업현장의 모든 작업자 및 관리자들도 눈앞의 실익에만 도취되어있는 현실이다 보니 안전의 중요성을 느낄 겨를도 없었는데 금번의 교육을 통해 안전은, 회사의 관리자인 본인에게 있어 모든 요소에 앞서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일임을 깨달았다.

차후에는 현장에 배치될 경우 가장 먼저 안전에 대한 모든 것을 점검하여 조그마한 일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쓸 것이며 안전이 모든 일의 기본임을 주지시켜야겠다.

한가지 이번 교육의 미비한 점이 있다면 우리같은 전문업체의 일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전혀없어 다소나마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이다. 차후 교육에서는 적은 시간이라도 신청업체의 상황을 파악한 후 적당한 교육이 되었으면 한다.

남해광케이블 공사의 경우 어려운 점이 상당히 내포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진행한 결과 재해로 유발되었고 적지 않은 손실을 보게 되었다. 이것을 거울삼아 최고경영자부터 현장기술자에 이르기까지 최고의 안전기사가 될 수 있는 회사로 거듭나야겠다.

현장에서 소홀히 여겼던 부분이 화를 불러 왔음을 알았고, 여러모로 신경을 써봤지만 역시 혼자서는 힘들다는 것을 체험했다.

차후 안전관리 책임자로서 현장에 나가 금번의 교육에서의 익힌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며 모든 사람이 생활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박용일/신양통신(주) 기술부과장

이 번 건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받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유능한 교수님들께 다양한 안전 교육을 받게 되어 감사드린다. 현장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번 교육을 통해 많이 알게 되어서 더욱 뜻깊다.

실습기간동안, 국회 도서관 건물을 견학할 기회가 있어 출근시간 몇백명씩 이용할 국회 도서관 지하 통로를 이용하게 되었는데 지하통로의 환경이 매우 열악했던 점, 며칠전 교육장 앞에서 카고 크레인인으로 가공된 철근을 운반도중 중량(과다한 중량)과 경사지 노면 통과 때문에 카고 크레인이 넘어진 현장 등은 안전·환경적인 측면에서 여러 문제점들을 느끼게 했다. 서울 시내를 다니면서, 많은 지하철 공사현장과 얼마전 복구된 성수대교의 모습, 시공중인 교량공사 현장 등을 볼 수 있었는데 그 현장들을 보면서 새삼 안전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다.

“안전교육에 대한 의식을 더욱 고취하는 측면에서 회사 동료들에게 건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더욱 권장했으면 한다.”

다시 한번, 열의를 다해 많은 교육생들에게 강의를 해주신 교수님들께 감사드리며, 현장에 가서도 안전교육의 중요성을 잊지 않는, 무재해운동에 앞장서는 기술자가 되어야겠다.

박성호/금광기업(주) 토목부사원

봄이 왔다

그렇다.
벌써 봄이 왔다.

나무들이 한껏 기지개한다.
바람은 깃털처럼 부드럽다.
수캐들은 새색시를 찾는다.
포니 휴토렌은 말했다
태양은 작고 따뜻한 손으로
내 피부를 쓰다듬는다고

굳어있던 아가씨들의 무릎이 풀린다.
핏줄 속으로 달콤한 크림이 흐른다.
하늘에는 반짝이며 비행기가 난다.
마음들이 들뜬다.
다시 산보를 나가고 싶다.

빛바랜 푸른색 빨간색 초록색들에
이제는 봄이 왔다.
세계가 온통 다시 채색된다.

詩 에리히 케스트너